■ 25만 관람…광주디자인비엔날레 52일 대장정 마쳐

디자인의 개념 새롭게 바꿨다

제4회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디자인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선사하며, 디자인 전시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호평을 받았다.

공동감독을 맡은 유명 건축가인 승효상과 중국의 예술가 아이웨이웨이는 전시장을 하나의 '가상 디자인 도시'로 꾸며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작동을 멈춘 일부 작품들이 그대로 방치됐고, 도슨트 부족으로 일부 전시실은 전혀 관리되지 않는 등 전반적인 운영 미숙을 드러냈다.

'도가도비상도'(圖可圖非常圖) 라는 주제로 열린 '2011 광주 디자인비엔날레'가 23일 광주 시립미술관 1층에서 폐막식을 갖고 52일간의 대장정을 마쳤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오월 아픔 디자인 재탄생…예술 통해 광주 재발견 계기
"규모·경쟁력 갖췄다" 해외언론 호평 잇따라
성공 노하우 수출 쾌거…작동 멈춘 전시장은 '옥의 티'

디자인의 새 지평을 열다

이번 디자인비엔날레 25만7000여명의 관람객을 동원하며 52일간의 여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유료 관람객은 20만6000여명이었고, 도심 곳곳에 설치된 어번폴리를 둘러본 관람객도 64만명에 달했다. 무엇보다 다소 어려울 수 있었던 전시 주제 '도가도비상도'(圖可圖非常圖)가 잘 녹아난 전시 구성이 돋보였다.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디자인은 아니다'는 뜻이 담긴 전시 주제를 설명해주는 이색 작품들은 잔잔한 감동과 재미를 줬다.

광주를 주제로 한 작품을 대거 선보인 점도 고무적이었다. 1980년 5월 사라져버린 아들을 애타게 찾는 엄마의 절규, 젊은 시절 희귀병을 앓아 시력을 잃고 점자 도서관에서 일하는 광주 시민의 목소리가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재탄생했다.

외국 작가가 찾아낸 광주의 도심 디자인의 패턴과 독창성을 보여줬다. 작가가 직접 광주에 머물며 상가와 마을 뒷골목, 전통시장 등을 곳곳을 걸으며 사진을 담고, 기물들을 모아 분류해낸 광주에 관한 기록을 선사했다.

이들 작품은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우리 생활 속에 담겨 있던 디자인의 가치를 알려주기에 충분했다.

이 같은 '예술을 통한 광주의 재발견'에는 '광주비엔날레와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광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새로운 해답도 담겨 있었다.

해외 언론을 사로잡다

영국의 유력 일간지 가디언은 지난 6일자 기사를 통해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상품 위주의 전시를 탈피한 규모와 경쟁력을 갖춘 작품을 선보였다"고 극찬했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인 뉴욕 타임즈도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가장 경쟁력 있는 디자인 이벤트로 정착할 것이다"라고 평했다.

그동안 광주비엔날레에 비해 해외에서 지명도가 떨어졌던 디자인비엔날레가 이번 전시를 통해 전 세계로 알려지는 계기를 만들었다.

미국의 예술전문 매체인 아트인포도 승효상 총감독, 무명전 브렌단 멕케트릭 큐레이터, 광주폴리 김영준 큐레이터의 인터뷰 등을 시리즈로 기획해 현대디자인의 새로운 정의를 선보인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자세히 소개했다.

이 밖에도 아트데일리(미국), 도무스(이탈리아), 디자인붐(이탈리아), 아트인포 차이나, 젯매거진(인도) 등도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성공적이 개최와 의미를 각국의 독자들에게 전달했다.

세계로 가는 광주의 노하우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성공 노하우를 프랑스와 터키에 수출하는 쾌거를 거뒀다. 2년에 한 번 미술 비엔날레만을 개최했던 이들 국가들이 미술과 디자인비엔날레를 번갈아 여는 광주를 벤치마킹, 디자인비엔날레 창설을 준비하고 있다.

또 어번폴리의 해외 순회전시가 추진되고, 일부 작품은 대기업으로부터 제작 의뢰를 받는 등 예술성과 산업화라는 두 마리 토끼도 잡았다.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광주를 따라 어번폴리를 추진하겠다며 광주시와 협의를 마쳤다. 어번폴리를 광주 대표 문화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해외 순회전을 추진하고 있다.

출품작에 대한 러브콜도 이어졌다. 최근 포스코의 고위 간부들이 이번 전시에 소개된 '바이크 행어'(Bike hanger)의 구입 및 제작 여부를 의뢰했다.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직원이 많은 포스코는 공장에 이 환경친화적인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기 위해 재단 관계자들과 협의 중이다.

무책임한 전시장 운영 빈축

이번 전시에는 컴퓨터와 모니터를 활용한 작품이 많았는데, 준비 부족으로 개막과 함께 10여점의 작품이 작동되지 않았다. 충분한 준비 과정없이 전시장을 오픈하다 보니, 처음부터 작동이 안 되거나 갑자기 멈춰버린 설치작품과 영상작품이 속출했다.

일부 작품은 작가와 대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전시장 시스템과 작가가 보내온 시스템이 서로 달라 다시 제작하는 경우도 잦았다.

개막 첫날 작동을 멈춘 '시선추적소프트웨어와 인터페이스'와 '뇌-컴퓨터 이터페이스'는 폐막할 때까지 먹통이었다. 또 음악을 들어야 하는 '테라노바 남극교향곡'의 고장난 이어폰도 폐막식 때까지 고쳐지지 않았다.

재단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직원들의 불친절에 항의하는 관람객의 글이 잇따랐고, 도슨트의 부족으로 전시장 안쪽의 작품들은 전혀 성명되지 않은 채 방치됐다.

또 단체관람객 위주로 전시가 진행되다 보니 오전에만 7000~1만명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날도 있어 느긋한 관람이 불가능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최대 히트작 '어번폴리'

건축가 상상력 구도심 이색 공간 탈바꿈
사람들 이야기하고 음악 듣는 명소 변신

이번 디자인비엔날레의 히트 상품은 어번폴리였다. 도미니크 페로 등 세계적 건축가들이 광주 도심 곳곳에 건축조형물을 세우는 것으로 국내외 건축계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하지만 외형적 성과에만 급급해 충분한 소통과 논의 과정 없이 다급하게 추진된 일부 구간의 어번폴리는 주민의 반대로 공사가 중단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또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못한 작품도 있어 아쉬웠다.

동구 대인동 대한생명 사거리에는 나데르 테라니가 광주의 기상과 미래를 담은 어번폴리가 화려한 모습을 드러냈고 동구 궁동 김재규경찰학원 앞에는 플로리안 베이겔이 설계한 5·18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들어섰다.

세계 유명 건축가들의 톡톡 튀는 상상력은 낡은 광주의 옛 도심을 이색 공간으로 탈바꿈 시켰다. 후안헤레로스의 작품이 들어선 장동로터리는 밤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 이야기를 나누는 사랑방이 됐다. 또 광주세무소 앞 어번폴리는 알록달록한 조명과 음악이 어우러져 행인들의 발길을 사로잡았고, 구시청 4거리의 어번폴리에는 젊은이들이 몰려들어 음악을 연주하는 새 문화 명소가 됐다.

국내 건축 전문가와 지자체 관계자, 건축 학도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지난달 22~23일 포항시청 관계자와 포항지역 건축사회 회원 40여명이 어번폴리를 감상한 뒤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통해 본 포항의 건축문화 발전방안'를 주제로 광주에서 세미나를 했다. 또 남양주 시장을 비롯한 남양주시청 건축 관계자들이 광주를 방문해 어번폴리의 건립 과정을 지켜봤고, 부산시청 도시경관 관계자들도 광주를 찾았다.

이 밖에 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디자인기획관 및 자문단 30여명, 종로구청장과 도시 관련 전문가 40여명, 대구시청 도시환경과 등에서 50여명이 어번폴리를 둘러본 뒤 광주시와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반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일부 구간에서는 주변 상인들과 마찰을 빚어 어번폴리 건립이 중단되는 등의 마찰도 있었다. 또 전시 개막 후에도 공사를 마치지 못해 추가 공사를 하는 등 문제점도 드러냈다.

이번 어번폴리 중 가장 기대를 모았던 베니스 건축 비엔날레 골든라이온상을 수상한 유명 건축가 피터 아이젠만(미국)이 설계한 충장로파출소 앞 어번폴리는 상인들의 반대로 끝내 완공되지 못했다. 충장로파출소 앞에 40m, 높이 7.2m에 달하는 어번폴리를 세우다 보니, 주변 상가의 간판이 구조물에 가려졌고, 상인들이 지난 26일부터 공사를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황금동 콜박스 사거리에 위치한 어번폴리는 울퉁불퉁한 턱 때문에 행인들이 걸려서 넘어지고 차량 사고마저 잦아, 차량 출입을 막는 방지 시설물을 설치해야 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장동로터리 앞 어번폴리

▼아시아문화전당 어번폴리

'명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꿈꾸며… 여러분을 열띤 토론의 장으로 모십니다'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활성화 포럼' 개최

2011년 10월 26일(수요일) 오후 1시 30분~6시

영암 현대호텔

| 기조연설 |
– 제1주제 : 지역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화 전략 …… 베르너 삿세 전 한양대 석좌교수
– 제2주제 : 글로벌화 시대 기업도시의 역할과 과제 …… 조용준 조선대교수

| 주제발표 |
– 기업도시 당면과제와 도시경쟁력 제고방안 …… 김홍규 연세대교수
– 기업도시 수변공간을 활용한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 …… 김천중 용인대교수
– 기업도시의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전략 …… 이태호 한국체권연구원 이사
– F1 경기 등 스포츠 이벤트를 활용한 마케팅 방안 …… 유의동 체육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

| 토 론 |
– 1부 좌장 : 고석규 목포대총장
– 2부 좌장 : 이건철 전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패 널 |
– 1부 : 박태원 광운대교수, 강신겸 전남대교수, 이종화 목포대교수, 정재현 광주일보 논설실장
– 2부 : 오병호 KDI교수, 강충효 JDC부장, 정병기 F1조직위원회 팀장, 임용묵 한국관광공사 팀장

| 문 의 | 광주일보 기획사업국 062-220-0674

| 주 최 | 문화체육관광부 | 주 관 | 한국관광공사 광주일보

| 후 원 | 2011 KOREAN GRAND PRIX F1대회 조직위원회